

# 현 · 상 · 수 · 배

## 고문경찰 이근안

**이근안**은 72년부터 공안경찰로 근무하면서 각종 시국사건과 '조작간첩사건'을 전담하여 상상을 초월한 고문으로 수많은 양심수의 심신을 파괴한 고문경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만 5년째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이근안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검거하여 인간을 피폐화시키는 고문을 이땅에서 추방합시다.

■ 수 배 자: 이근안 (일명: 반달곰)      ■ 나 이: 55세

■ 인상착의 :

키: 170cm, 체중 90kg  
구리빛 얼굴에 눈이 짙짐  
딱벌어진 어깨, 흰머리가 있음  
숄뚜껍처럼 큰손을 갖고 있음

■ 자주 쓰는 말 :

"철성판을 내가 발명했다"  
"내가 손대면 누구든지 입을 열게 돼 있다"

■ 특기사항 :

전문적인 고문기술자로  
판질뽑기, 통닭구이, 전기고문  
물고문등 각종고문에 통달  
출장고문 다님

■ 고문경력 :

79년 남민전 사건  
80년 기자협회 사건  
81년 무림, 전노련 사건  
85년 민청련 사건(김근태씨)  
85년 12월 남북어부 김성학씨  
86년 반제동맹당 사건



현 상 금 : 3백만원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10.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763-2606

# 이근안

은 수많은 시국사건과 조작간첩사건에서 고문기술자로 활약한 관록의 소유자로 경찰내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악명높은 고문의 명수입니다.

## ■ 김근태씨의 증언

“운동화를 꺼내어 신고 삐딱하니 나를 꼬나 보는 그는 거리의 어느 구석에 있을 짱패, 전형적인 어깨 타입의 풍모였다. 눈을 불안정하고 빠기면서 걷는 인간 백정같았다. ... 그는 ‘내 형님은 훨씬 더 무서운 데 지금 안계셔서 다행인줄 알아라. 그동안 장의사가 한가했는데 일감이 풍족하게 생겨서 살맛이 난다. 작업을 차근차근 해나갈테니 단단히 각오해라.’고 협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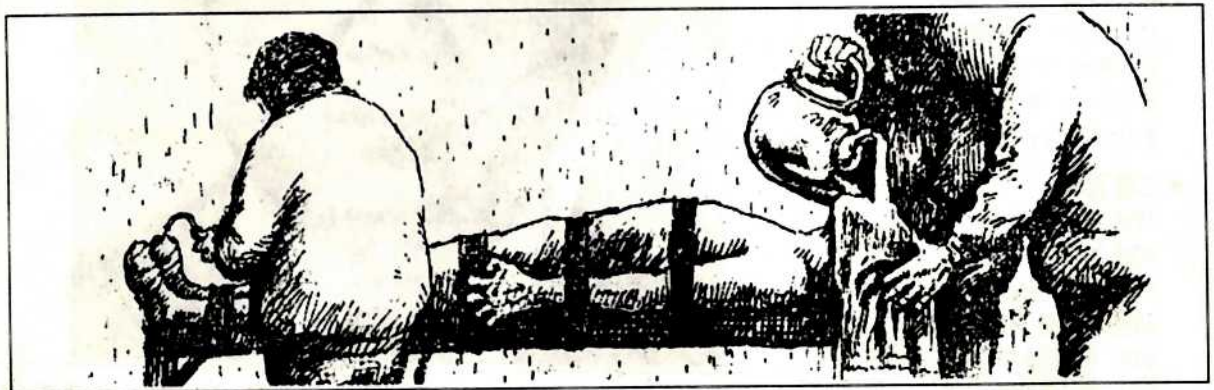
## ■ 이장형씨의 증언(67일간 고문)

“이근안이라는 사람은 단적으로 말해서 인간이하의 악마로 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명심과 금욕에 혈안이 되어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목적을 달성하였던 흡혈귀였다. 나는 법에 무지하여 어떻게 하든지 고문사선에서 빠지려고만 하였으나 능숙한 전기고문 기술자가 준비한 칠성판위에 던져진 나의 나신은 안전벨트로 머리위에서 부터 발끝까지 팔등신으로 묶어서 제멋대로 요리 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두려웠던 것은 나의 처와 자녀들을 나신화하여 똑같은 고문으로 요리하겠다는 것이었다.”

## ■ 함주명씨의 증언(45일간 고문)

“이근안은 칠성판위에 나를 눕히고 손과 발을 팽팡 묶었다. 그리고 입위에 수건을 올려 놓은뒤 샤워꼭지를 대고 수돗물을 부었다. 전기고문까지 겹쳐져 더이상 견딜수 없었던 나를 그들은 풀어 주었다. 그러자 나의 입에선 한바케스 이상의 물이 토해져 나왔고 나는 실신 상태에 빠졌다.”

이근안의 고문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근안은 수배조치되었고 이근안과 함께 김근태씨의 고문에 가담했던 동료 백남은(전 치안본부 대공계장)을 비롯한 4명은 고문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입니다  
김영삼 정권이 5.6공의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으로 민주화를 지향한다면 즉시 이근안을 구속하여 반인간적인 고문을 자행하는 수사관행이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검찰은 이근안을 현상수배하고 특별검거 기간을 설정하여 신속히 검거하라!
- 이근안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함주명, 이장형씨를 석방하라!
- 고문에 의해 구속된 양심수 전원을 석방하라!

# 고문경찰

# 이근안

# 현상수배

고문기술자 이근안(전 경기도경공안분실장, 경감)이 수배된 지 만 3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고문」을 정권유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배권력이 이근안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는 72년부터 공안경찰로 근무하여 왔고 79년 이후 대공분실 등에서 시국사건을 전담하여 소위 “관절뽑기”를 주특기로 하여 물고문, 전기고문 등 능숙한 고문기술로 남민전사건, 반제동맹당사건, 김근태씨사건 등을 조작하고 수많은 민주인사의 심신을 파괴한 자입니다.

야만적 고문경찰을 처벌하여 우리사회에서 반 인간적 고문행위를 퇴치합시다.

9'

• 인상착의

: 일명 반달곰, 신장 172cm 가량, 배가 볼록 나왔으며 90kg 이상의 거구임. 손이 솔뚜껑만 하고 눈이 째지고 흰머리가 있음. 얼굴이 험악함.

• 현 상 금

: 3백만원

• 연 락 처

: 서울 02-763-2606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 051-817-6460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 062-521-3783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옆사진은 젊었을 때 사진으로 실물은 늙고 몹시 험악한 얼굴임.



1. 경찰은 이근안의 도피행각에 대한 방조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검거, 구속하여 고문사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온국민에게 발표하라!

1. 이근안을 비롯한 고문경찰을 지휘하여 고문수사를 자행해온 치안당국자를 색출 처벌하라!

1. 고문폭압기구 안기부, 기무사, 경찰청 대공 수사단을 해체하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참여연대 인권 자료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
	B10.